

## 教壇을 떠나면서



趙 一 文  
(前 建國大 總長)

### I

내가 敎職에 몸 담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總長과 敎授生活를 포함한 40年間に 걸쳐 情든 캠퍼스를 떠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萬感이 交叉하고 그 感傷을 무어라 形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우리 靑土가 日本 제국주의에 짓밟히고, 온 유럽이 硝煙에 휩싸인 20세기 초엽에 咸鏡道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40리 길을 오가며 普通學校를 다녔습니다. 깊은 물을 건널 때에는 어른의 등에 업히고, 눈이 가슴까지 찰 때에는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중등학교도 여전히 촌티 흐르고, 쪼들린 가난 속에서 겨우 다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넓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품고 中國으로 건너 갔습니다. 스물이 갓 넘어서였습니다. 仁川에서 화물선을 타고 표류 일주일만에 上海에 닿았습니다.

이 무렵, 日本은 이미 中國 대륙을 유린하여, 동녕의 중요 도시와 공업지대를 모조리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日本 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中國 도처에서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學究를 위하여 계속 붓을 들 것인가, 아니면 祖國을 위하여 종을 잡을 것인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결국 나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학을 나오고 곧바로 光復戰線에 투신하였습니다.

獨立運動界! 그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索漠한 세계였습니다. 뼈를 짚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浙江의 지봉 天台山에 올라 嗷然히 異國山河를 굽어보았습니다.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杜甫의 ‘春望詩’를 읊조리며, 조국도 산하도 없는 내 처지를 더욱 悲感하였습니다. 나는 中原벌 휘몰아치는 黃塵 속에서 고향 산천 그리움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굶이치는 揚子江 언덕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다가, 江西에서 福建으로 가는 어느 길목에서였습니다. 나는 우연히 한 美軍 장교의 屍體가 星條旗에 덮혀서 큰 차에 실리는 것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어서 밧을 내 나라의 깃발과, 문힐 내 조국의 땅을 가질 것인가?

나라 없는 백성의 비애가 일시에 복받쳐 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感傷을 씻고 危難의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몇 번이고 사선을 넘었으나, 나에게서는 끝내 조국 광복을 위해 땀이

죽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II

해방후, 나는 DDT 세례를 받으며 仁川港에 돌아왔습니다. 靑雲의 뜻을 품고 떠난 그 부두에 초라한 戰災民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臨時政府要人을 찾아 다니는 대신, 대학을 찾았습니다. 淑明女子專門學校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거기에 조교수로서 첫 발을 들여놓은 이래, 삼십여년의 세월을 대학과 더불어 보냈습니다. 인생의 거의 전부를 흑판 앞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建國大學校에서 지냈습니다. 建國大學校 樂園洞 구교사의 이끼진 주춧돌, 수도 수북 직후의 허술한 콘서트 교사, 거기에서 艱耕夜讀하던 二部大學生들의 面이 눈에 아롱거립니다. 長安洞 본교에서도 처음에 一鑑湖를 파던 일, 지금의 사범대학, 정법대학, 문리과대학 그리고 도서관을 짓던 광경이 눈에 잡힐듯 선합니다. 넓은 캠퍼스의 어느 한 구석에도 속삭이는 옛이야기 없는 곳이 없으며, 어느 한 그루 나무, 한 포기 풀에도 정감어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랜 교수 생활을 통하여, 만여시간의 강의를 하고, 십여권의 저서를 내고, 4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결코 훌륭한 학자도,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이나 학식도 그러려니와, 교수 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補贖을 맡는 통에, 깊이 있는 학구생활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서나 논문도 이렇다 할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나는 언제나 학생에게 인간의 길, 민주시민의 책임, 조국에 대한 충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미력을 다하였습니다.

삼십여년간 사무에 불충실한 일은 있었으나, 講義에 빠진 일은 없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토박 토박 강의하고, 시험은 엄격하게 치루었습니다. 學點때문에 헐박을 받은 일도 있고,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요구를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4.19 때에는 교수 데모에 가담하여 부패 정권의 타도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나는 그

후 끊임없이 부는 바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世態에 영합하거나 時流에 편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년 동안 大學街는 조용한 해가 없었습니다. 굵기야는 대학이 문을 닫고 수업도 연구도 중단해야 하는 기막힌 사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인 잃은 대학, 그것은 廢墟였습니다. 흡사 '죽은 대학'이었습니다. 넓은 캠퍼스, 아름다운 화초는 墓域에 놓인 吊花일 뿐 아무런 生動感을 자아낼 수 없었습니다.

## III

내가 建國大學校 총장이 된 것은, 10.26 사태 이후의 거센 風浪의 渦中에서였습니다. 비바람은 교내외에서 세차게 불어 닦쳤습니다. 나는 때로는 학생들을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籠城 학생과 더불어 학교에서 며칠 밤을 지새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 차례 颶風이 지나간 뒤에도, 풍파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런 일로, 나는 총장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다리를 쭉 뻗고 자 보지 못했습니다.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생각하건대, 山間僻地 가난한 집에 태어나 소 타고 普通學校 다니던 내가, 대학총장까지 된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은 人之常情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대학의 사명과 총장의 막중한 책무를 생각할 때, 이는 내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우기 다사다난한 이 시기에 큰 배를 이끌고 어지러운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年富力強하고 유능한 분이 船長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총장으로 있는 기간중에도 팔짱 끼고 虛送歲月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로 勉學風土를 정착시키고, 교내 질서를 확립하고, 교육 시설을 확장하는 데에 하나의 자그마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課業은 예기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3년 전 총장 취임사에서 다짐한 일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더우기 나는 최근 대학의

갑작스러운 景의 팽창에 따르지 못하는 質의 문제를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質이란 단지 학생의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대학인이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할 것은, 최고학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人格과 教養을 쌓는 일입니다. 내면에는 그동안 학생으로 하여금 각종 전문 지식을 터득케 하는 동시에, 道義心과 愛國心을 기르도록 갖은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도한 物質萬能의 풍조 앞에서는 螳螂拒轍의 보잘것없는 노력에 불과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무력을 닦하는 동시에 道德과 良心의 파탄 위에 급조되어 가는 拜金思想과 唯知主義의 싸늘한 形骸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학 행정을 주관함에 있어서 능란한 수완을 발휘하거나, 巨金을 끌어들이거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대학인으로서의 正道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불쌍한 정경, 위우치는 사람에게는 약했지만, 不道德的인 것에는 결연히 맞섰습니다.

학교의 예산은 무던히 아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학부모들의 血汗이 스민 등록금을 어찌 한 푼인들 헛되이 쓸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建國大學校에 재직한 삼십년 동안 교수로부터 사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내 친척이나 친구를 밀어 넣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대학을 떠남에 있어서, 내 사관이 없다 하여 脈絡이 끊어진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時點에서, 이 대학과 더불어 불가분의 紐帶感을 느낍니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각별히 친숙하게 지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고, 제자의 마음마다 내 片影이 남아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IV

회고하던대, 동란후 대학에는 많은 도시와 농촌의 학생이 불려들었습니다. 전후 사회의 混

沌과 疲弊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홀로 擊壤歌를 불렀습니다. 캠퍼스는 莊園처럼 넓어지고 교사는 높이 치솟았습니다. 농촌 父母들은 자제를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가족이나 門前玉帛을 팔아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千辛萬苦 끝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대학은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高等流民을 量産하는 곳이 아니냐는 懷疑와 더불어 ‘大學亡國’이라는 극단적 비판론까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 경원당하여 온 대학 출신이 1970년대의 한국 경제 부흥의 旗手가 될 줄은 당시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대학은 점차 사회의 公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국·공립 대학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어떤 사립 대학도 民族共有의 대학,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국민의식 속에 터잡게 되었습니다.

대체 대학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세인의 耳目이 집중되는 것이겠습니까? 18세기에 접어들면서, 富國強兵策을 추구하던 絕對君主들은 종래의 University 나 College와는 별도로 근대적 군비와 산업에 직결되는 Institute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실용적 가치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론의 創出은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는 전통적인 대학 重視 思想과 더불어 蔚然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세기초의 유럽은 소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07년 Fichte는 Napoleon 군대의 점령하에서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속 강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道義와 愛國精神, 그리고 청년의 教育問題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인의 가슴에 民族主義에 대한 激動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眞理의 普遍性만을 믿고 있던 대학은 점차 ‘국가 안에서의 대학’,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保守黨首 Chamberlain은 “각국간의 대학의 경쟁은 군함 제조 경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가 ‘국가적 인재 양성’이라는 기본목표에 照準하여 모든 대학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의 名門 私大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 사회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봉사하였는가는 우리가 줄곧 지켜본 바와 같습니다.

## V

한편, 한국의 대학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한국의 대학들은 一見 덩치는 크고 外形은 번지르르하지만, 알맹이가 꼭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창조를 위한 刻苦勉勵보다는 안이한 模倣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면에서도 허다한 盲點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대학은 民主·正義를 위하여 횃불을 들기도 했지만, 끊임 없는 문제의 震源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의 실정은 대학의 넓은 캠퍼스나 높은 교사를 학생들의 공부 아닌 다른 어떤 모임이나 유희장으로 제공할 만큼 유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그동안 농촌으로부터 많은 빛을 졌습니다. 국·공립 대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우리 모두가 국군이 지켜 주는 휴전선 그늘에서 안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대학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진 큰 빛입니다. 이제 대학은 그 빛을 갠아야 할 차례입니다. 대학이 公開講壇을 열거나, 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도 부채 상환의 한 방법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穿鑿으로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응용·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대학은 모름지기 겉치레보다도 內實을 기하여야 합니다. 잡다한 행사나 떠들썩한 선전보다는, 한편의 책을 더 읽고, 한편의 논문을 더 내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로소 대학은 사회에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밝은 빛을 投射하고, 나아가서는 온 겨레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대학은 결코 사회의 귀중한 재산을 헛되이 축내지 않습니다. 놀고먹는 貴族은 있었으나, 無爲徒食한 대학은 없었습니다. 대학은

때때로 고민하거나 진통을 겪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코 사회의 良識·民族의 良心을 저버리지 않았었습니다. Wundt는 “독일의 부흥은 베를린 대학으로부터”라고 외쳤습니다. 대학은 겉보기에는 나약한 것 같지만, 그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진리의 빛, 창조의 힘은 千楡萬劍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民族中興의 원동력이 되고 역사 발전의 機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대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서 단인의 기대를 모았으며, 따라서 대학과 대학인의 사명은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만일 대학이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외로부터 어떤 침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조국을 지키는 병사라도 같은 毅然한 決意로 대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VI

나는 이제 총장을 물러남과 동시에, 영원히 교직에서 떠납니다. 무겁고 번잡한 총장의 짐을 벗어 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분한 마음도 듭니다만, 삼십여년의 교수 생활을 하적하는 데에는 한 가닥 哀愁가 없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정든 캠퍼스를 떠나 한 가족처럼 지내던 많은 분과 헤어지는 것은 매우 섭섭합니다.

나는 아직도 퇴임후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江 따라 흘러가며 구름과 鶯을 벗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룩작 걸머지고 山野를 遍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손자나 과 주며 鬻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나는 내 아름답고 값진 추억을 고이 간직하며, 한때 조국 독립을 위하여 몸을 던졌던 광복운동 진영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처신을 헤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 나라 知性的의 象徴인 대학에 몸을 담았던 노교수로서, 또는 대학 교육 행정의 책임을 맡았던 전임 총장으로서, 品位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 들고, 가난하고, 외로울지라도 아픈일랑 나이에 접어두고, 의연히 風霜을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孤高히 지내고 싶습니다. \*